

朝鮮時代刊行 中國文學關係書概況

金 學 主

1. 序 論

이 글은 朝鮮時代に 刊行된 中國文學關係典籍에 관한 研究를 위한 基礎作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朝鮮時代に 刊行된 中國文學關係典籍들을 하나하나 研討하기 전에 먼저 그 책들의 全貌를 概略적으로 把握해 보려는 것이다. 대체로 어떤 종류의 책들이 刊行되었는가 綜合적으로 살펴보면, 그 책들의 種類別 특징과 刊行時期別 특징 등을 研討해보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진행될 책 하나하나에 대한 板本과 그 價値研究를 위한 基礎作業이어서 대체적인 윤곽만 파악하면 되는 것이므로, 뒤에 提示한 여러 학자들의 調查研究 成果와 既刊 主要 圖書館 藏書目錄 등을 活用하여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것을 통해서도 朝鮮時代 우리 先人들의 中國文學에 대한 理解와 研究態度 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朝鮮時代 文人들이 中國文學의 어떤 分野를 重視하였는가, 또는 어떤 分野를 배우는데 力點을 두었는가 대략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책을 하나하나 調查研究하는 길잡이가 되어 일의 先後를 결정하는 端緒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 만으로도 中國文學者들이 우리 國內의 資料를 研究에 活用함에 있어 적지 않은 便宜를 提供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여기에 실린 刊行書目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지금도 調査가 進行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오랜 동안 進行될 예정이므로 훗날 補充修正하여 보다 完善한 것을 만들것을 期約하고 있다. 그리고 儒家經傳과 諸子類는 모두 〈中國思想關係〉 쪽으로 미루었다.

2. 朝鮮時代刊行 中國文學關係書目

甲) 詩文集

作者時代	作者	書名	板式	朝鮮初刊年代	覆刊
周	姜子牙	風雨賦	活字	仁祖朝	無
蜀	諸葛亮	諸葛忠武侯全集	〃	未詳	無
魏	曹植	陳思王集	〃	中宗朝	未詳年
晉	陶淵明	陶淵明集	〃	中宗 17, 1522	無
〃	〃	箋注靖節先生集	〃	宣祖 16, 1583	〃
〃	〃	陶靖節集	木板	肅宗朝	〃
〃	〃	陶靖節集抄	活字	未詳	未詳年
〃	〃	須溪校本陶淵明詩集	木板	〃	無
唐	魏徵	魏鄭公諫錄	活字	中宗 33, 1538	明宗朝
〃	寒山	寒山子詩集	木板	未詳	無
〃	李白	分類補注李太白詩	活字	世宗 17, 1435	宣祖・正祖等
〃	〃	分類補注李太白詩文集	〃	光海 8, 1616	無
〃	〃	李太白文集	〃	光海朝	未詳年
〃	〃	李謫仙七言古詩	〃	未詳	無
〃	杜甫	杜工部集	〃	光海朝	未詳年數次
〃	〃	分類杜工部詩	〃	未詳	未詳年
〃	〃	纂注分類杜詩	〃	世宗 26, 1444	成宗・中宗等
〃	〃	集注草堂杜工部詩	〃	世宗 13, 1431	無
〃	〃	杜工部草堂詩箋	木板	世宗朝	〃
〃	〃	虞注杜律	〃	成宗 2, 1471	未詳年
〃	〃	須溪先生批點杜工部排律	活字	中宗朝	無
〃	〃	黃氏集千家注杜工部詩史補遺	木板	未詳	〃
〃	〃	杜工部詩范德機批選	〃	〃	〃
〃	〃	杜工部分類五七言律詩	〃	〃	〃
〃	〃	杜工部五言律詩	〃	〃	〃
〃	〃	精選杜詩五言律	〃	〃	〃
〃	劉長卿	劉隨州文集	〃	明宗間	無
〃	韋應物	韋蘇州集	活字・木板	肅宗朝	未詳年 2次

作者時代	作者	書名	板式	朝鮮初刊年代	覆刊
唐	韓愈	朱文公校昌黎先生集	活字·木板	世宗 20, 1438	明宗·宣祖等
〃	〃	新刊五百家注音辨昌黎先生文集	木板	未詳	無
〃	〃	韓昌黎詩		中宗·宣祖間	〃
〃	〃	韓文正宗	活字·木板	明宗·宣祖間	未詳年 2次
〃	〃	昌黎文抄	活字	肅宗朝	無
〃	〃	韓文抄	〃	〃	〃
〃	〃	韓文選	木板	未詳	〃
〃	〃	韓昌黎韓先生碑誌	活字	〃	〃
〃	柳宗元	唐柳先生外集	木板	世宗 21, 1439	〃
〃	〃	唐柳先生集	活字·木板	世宗 22, 1440	未詳年·數次
〃	〃	京本校正音釋唐柳先生集	木板	中宗 29, 1534	無
〃	〃	諸家注柳先生集		宣祖朝	〃
〃	〃	唐柳先生新編外集	活字	未詳	〃
〃	〃	唐柳先生別集	木板	〃	〃
〃	〃	柳柳州文集	活字	肅宗 10, 1684	
〃	〃	柳柳州詩集	活字·木板	肅宗朝	未詳年
〃	〃	柳文抄	活字	〃	無
〃	〃	茅鹿門抄評柳柳州文	〃	〃	未詳年
〃	〃	唐大家柳柳州文抄	〃	未詳	無
唐	白居易	白氏文集	木板	未詳	無
〃	〃	香山詩抄		成宗朝	〃
〃	李賀	李長吉集	活字	成宗·中宗朝	未詳年
〃	杜牧	樊川集	活字·木板	世宗 22, 1440	未詳年·數次
〃	〃	樊川外集	木板	未詳	無
〃	李商隱	李商隱詩集	活字	中宗·宣祖間	未詳年
〃	〃	玉溪生集纂解	木板	肅宗 18, 1692	無
〃	陸贄	陸宣公集	〃	未詳	〃
〃	〃	陸宣公奏議	活字	英祖·正祖間	未詳年
宋	歐陽修	歐陽文忠公集	活字	中宗 25, 1530	中明間·明宗
〃	〃	宋大家歐陽文忠公文抄	活字	未詳	未詳年
〃	〃	歐陽文抄	〃	〃	未詳年·數次
〃	蘇洵	精選三蘇文老泉先生集	〃	中宗·明宗間	無
〃	蘇軾	增刊校正王狀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	活字·木板	世宗朝	成宗·中宗等

作者時代	作者	書名	板式	朝鮮初刊年代	覆刊
宋	//	增刪校正東坡先生詩集	活字	光海 8, 1616	無
//	//	分類東坡詩		中宗朝	//
//	//	蘇詩抄	活字	//	//
//	//	蘇詩摘律	//	中宗·明宗間	//
//	//	蘇文抄	活字	光海 8, 1616	未詳年
//	//	蘇東坡文抄	//	肅宗朝	//
//	//	宋大家蘇文忠公文抄	活字·木板	未詳	未詳年
//	//	東坡文粹	木板	未詳	無
//	蘇轍	宋大家蘇文定公文抄	活字	未詳	未詳年
//	曾鞏	南豐先生近體詩抄	活字	成宗朝	無
//	//	宋大家曾文定公文抄	木板	未詳	//
//	王安石	三荊公詩集	活字	成宗 15, 1484	未詳年
//	//	王荊文公詩	//	未詳	無
//	//	王荊文公集	//	成宗朝	明宗·宣祖間
//	//	宋大家王文公文抄	活字·木板	未詳	未詳年
//	//	王文抄	木板	//	
//	//	王臨川文抄	//	//	無
//	黃庭堅	山谷詩注	活字	世宗朝	//
//	//	山谷集詩注·內·外·別集	活字·木板	中宗·明宗間	未詳年
//	//	山谷詩集注	活字	光海朝	未詳年
//	//	山谷內集詩注	活字·木板	未詳	//
//	//	山谷外集詩注	木板	//	//
//	//	山谷別集詩注	活字·木板	光海朝	未詳年
//	陳師道	後山詩注	活字	中宗朝	光宗仁宗間·宗孝
//	//	後山先生集	//	明宗朝	無
//	陳與義	須溪先生批點簡齋詩集	活字·木板	成宗 16, 1485	中宗·光海
宋	邵雍	伊川擊壤集	木板	正祖 10, 1786	未詳年
//	//	伊川擊壤集選	活字	未詳	無
//	張栻	南軒先生文集	//	宣祖 7, 1574	無
//	//	南軒集	木板	未詳	//
//	黃榦	黃勉齋先生文集	//	//	//
//	陸游	名公抄選陸放翁詩集	活字·木板	世宗朝	成宗·中宗間 光海
//	//	澗谷精選陸放翁詩集	木板	未洋	無

作者時代	作者	書名	板式	朝鮮初刊年代	覆刊
宋	朱熹	朱子大全, 續集, 別集	活字・木板	中宗 38, 1543	宣祖・英祖等
"	"	朱子語類	活字	宣祖 4, 1571	未詳年
"	"	朱子文集大全	木板	英祖 47, 1771	無
"	"	朱子語類大全	"	" "	"
"	"	紫陽文集	木板	未詳	"
"	"	文公朱先生感興詩	"	明宗 9, 1554	"
"	"	朱文公先生齋居感興詩諸家注解集覽	活字・木板	英祖 29, 1753	未詳年
"	文天祥	文山先生文集	活字	成宗 24, 1493	無
"	"	文山先生別集	"	中宗・明宗間	"
宋明	文天祥方孝孺	文天祥方孝孺文集		宣祖 18, 1585	"
明	方孝孺	方正學文抄	活字	肅宗朝	未詳年
"	朱元璋	明太祖文集	"	明宗元, 1546	無
"	薛瑄	敬軒薛先生文集		中宗・明宗間	"
"	賀欽	醫隱先生集	木板	明宗 16, 1561	"
"	李東陽	懷麓堂詩集	活字	明宗 4, 1549	"
"	"	懷麓堂文藁	"	中宗・宣祖間	"
"	"	西涯擬古樂府	活字・木板	世宗朝	光海・純宗
"	茅坤	皇明大家茅鹿門文抄	活字	肅宗朝	無
"	王世貞	皇明大家王弇州文抄	"	"	"
"	茅坤・王世貞	皇明茅鹿門王弇州二大家文抄	"	未詳	"

乙) 詩文選

編者時代	編者(注者)	書名	板式	朝鮮初刊年代	覆刊
漢	劉向(朱熹)	楚辭集註・後語・辨證	活字・木板	世宗朝	中宗・明宗間 光海等
宋	朱熹	楚辭後語・辨證	活字・木板	世宗 11, 1429	端宗・未詳年等
梁	蕭統	文選 六臣注	活字	世宗 10, 1428	明宗・宣祖間, 中宗等
"	"	文選 五臣注	活字・木板	成宗朝	未詳年・數次
元	劉仁初	新刊類編歷舉三場 文選古賦	活字・木板	世宗朝	端宗
"	"	新刊類編歷舉三場 文選對策	活字	"	無
"	"	文選對策輯略	"	中宗・明宗間	"

作者時代	作者(注者)	書名	板式	朝鮮初刊年代	覆刊
元	劉仁初	選賦抄評注解刪補	木板	未詳	//
//	//	選詩演義	活字	世宗 16, 1434	無
//	//	選文撰英	//	宣祖朝	未詳年
//	//	賦選	//	成宗朝	//
//	//	律賦表箋	//	中宗·宣朝間	無
宋	李昉	文苑英華	//	中宗 31, 1536	未詳年
//	黃堅	詳說古文眞寶大全	活字	端宗元, 1453	成宗·明宣間等
//	眞德秀	西山先生眞文忠公文章正宗	//	世宗 10, 1428	成宗·中宗等
//	//	續眞文忠公文章正宗	//	明宗 11, 1555	未詳年
//	謝枋得	疊山先生批點文章軌範	木板	中宗·宣祖間	//
//	樓昉(李樗)	迂齋先生標記崇古文訣	活字	中宗 14, 1519	無
//	//	聖宋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	活字	中宗 37, 1542	//
明	李伯璵	文翰類選大成	//	成宗朝	//
//	吳訥	文章辨體	//	明宗 10, 1554	未詳年
//	胡時化	名世文宗	//	未詳	無
//	茅坤	唐宋八家文抄	活字·木板	顯宗朝	肅宗·正祖等
//	//	漢人文選		中宗·宣朝間	無
//	//	韓柳李杜蘇黃詩文		中宗 18, 1523	無
//	//	大宋眉山蘇氏家傳心學文集大全	活字	中宗朝	//
//	//	大宋眉山蘇氏家傳文集大全		中宗 12, 1517	//
//	//	歐蘇手柬抄選	木板	顯宗朝	//
//	//	歐蘇手簡	//	未詳	//
//	//	宋朝表牋總類	//	//	//
//	//	聖元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	//	中宗 37, 1542	//
//	趙仁奎	儷語類編	//	中宗	中宗·宣祖間, 未詳年
//	//	儷文抄	活字	肅宗朝	未詳年 2次
//	//	儷文集成	//	肅宗 38, 1712	無
清	王士禎	古詩選	//	肅宗 11, 1685	//
元	方回	瀛奎律髓	活字	成宗 6, 1475	中宗·未詳年等
//	元好問(郝天挺)	唐詩鼓吹	//	世宗朝	成宗

作者時代	作者(注者)	書名	板式	朝鮮初刊年代	覆刊
〃	〃	新刻蘇板古本句解唐詩鼓吹大全	木板	未詳	無
明	朱紹·積	鼓吹續編	活字	〃	〃
元	于濟	精選唐宋十家聯珠詩格	〃	成宗 19, 1488	中宗·明宗
宋	王安石	唐百家詩	〃	宣祖 3, 1570	無
〃	〃	唐百家詩呂溫集	活字	明宗·宣祖間	無
〃	朱熹	訓蒙絕句	〃	明宗 4, 1549	〃
明	高棟	唐詩品彙	活字·木板	成宗 5, 1484	明宗·宣祖間, 英祖
〃	〃	唐詩正音抄	〃	明宗 10, 1554	無
〃	〃	唐詩正音輯注	活字	明宗 11, 1555	〃
宋	趙蕃·澆	唐詩絕句	〃	宣祖朝	〃
明	康麟	雅音會編	〃	中宗 35, 1540	〃
元	劉履	風雅翼選詩補注·補遺·續編	〃	中宗朝	明宗
〃	〃	唐詩彙選	〃	宣祖朝	〃
〃	〃	五言唐音	木板	高宗 7, 1870	無
〃	〃	唐律集英	活字	純祖 10, 1810	〃
元	楊士弘(張震)	唐詩始音輯注	木板	未詳	〃
〃	楊士弘	唐詩遺響	〃	〃	〃
宋	呂本中	東萊先生唐詩詳節	活字	〃	〃
〃	〃	宋詩正韻	〃	中宗·宣祖間	〃
〃	〃	皇明五大家詩文抄	〃	肅宗 7, 1681	〃
〃	〃	皇明五大家文抄	〃	肅宗 10, 1684	〃
〃	〃	皇明五大家律詩抄	〃	肅宗 7, 1681	〃
〃	〃	盛明五大家律續抄	〃	未詳	無
〃	〃	大明一統志詩詠集類	〃	中宗 38, 1543	〃
〃	〃	大明一統賦	〃	中宗·宣祖間	〃

丙) 小說・類書

作者時代	撰者名	書名	板式	朝鮮初刊年代	覆刊
漢	劉向	列女傳		中宗 38, 1543	
南朝	劉義慶	世說新語補	活字	顯宗朝	肅宗
宋	段成式	唐段少卿酉陽雜俎	木板	成宗 23, 1492	無
唐	瞿佑	剪燈新話句解	活字・木板	肅宗 30, 1704	未詳年
明		剪燈新話餘話		燕山君 12, 1506	
"		會纂宋岳鄂武穆王精忠錄	活字	宣祖 17, 1548	"
宋	祝穆 (富大用)	新編古今事文類聚	活字・木板	成宗 24, 1493	明宗・純祖等
明	丘濬	新鐫詳解丘瓊山故事成語 必讀成語考	木板	肅宗 8, 1682	

丁) 詩文論・韻書

作者時代	作者名	書名	板式	朝鮮初刊年代	覆刊
宋	陳繹曾	文章歐治(文筌)	木板	未詳	無
"	魏慶之	詩人玉屑	"	世宗 21, 1439	"
元	歐陽起鳴	歐陽論範	活字	成宗朝	"
		唐宋句法		世宗朝	"
		呂律新書解	活字	中宗朝	"
		詩餘圖譜	"	宣祖朝	"
明	楊慎	升菴詩話	"	未詳	"
"	胡應麟	詩藪	木板	"	"
"	王世貞	藝苑卮言	活字	"	"
		詩學集押韻淵海	"	宣祖朝	"
宋	黃公紹	古今韻會舉要	木板	"	"
明	樂韶鳳	洪武正韻	木板	英祖 46, 1770	"

3. 刊行時期別特徵

朝鮮이 建國된 이래 世宗朝(1419~1450)에 들어와서 銅活字의 鑄造를 바탕으로 하여 본격적인 中國文學關係 書籍들이 刊行된다. 그리고 이에

관한業績만을 놓고 보더라도 世宗이야말로 不世出의 위대한 文化的인 大王이었음을 實感하게 된다.

世宗朝에 刊行된 中國文學關係 書籍들은 中國文學史 全般에 걸친 各時代 要籍들을 自主적으로 선택하였음을 알게 된다. 이는 中國文學史 발전의 主流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로 中國文學을 받아들이고 연구하여 우리 文化 발전의 밑거름이 되게 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곧 先秦時代에 있어서는 <詩經>·<書經>을 비롯한 儒家의 주요 經傳들과 함께 <莊子>가 刊行되었고, <楚辭>와 <昭明文選>에 이어 唐代에는 李白(701~762)·杜甫(712~770)·杜牧(803~852?)과 韓愈(768~824)·柳宗元(773~819)의 詩文集, 宋代에는 蘇軾(1037~1101)·黃庭堅(1045~1105)·陸游(1125~1210), 明代에는 李東陽(1447~1516)의 詩文集을 가려 刊行하였는데, 이는 中國 各時代의 文學의 頂點을 잘 집어낸 것이다. 지금은 失傳되고 있는 文集들이 적지 않을 것이나 現存된 책들을 놓고 볼 때, 그것도 모두가 各時代를 대표하는 大家들의 文集이었을 것이라 말해도 큰 잘못이 되지 않을 것이다.

詩文選集에 있어서도 <楚辭>와 <文選> 이외에 <文章正宗>과 <古文眞寶> 및 <唐詩鼓吹>를 내고 있고, 詩論書로는 宋 魏慶之의 <詩人玉屑>을 내고 있는데, 中國의 詩와 散文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詩文의 공부를 위하여 지극히 잘 선택된 것들이라 하겠다.

책의 종류만이 잘 선택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刊印의 底本으로 삼은 板本조차도 精選된 것들로 보인다. 이들 각책의 板本上의 가치는 앞으로 진행될 각 책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에서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그 위에 이 책들이 그 시대 다른 나라에는 類例가 없는 精刻된 活字로 아름답게 인쇄되어 있어서, 책의 겉 모양에 있어서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수준이다. 世宗朝에 刊印된 中國文學關係 책들을 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도 雜書이거나 要籍이 아닌 것들이 없고 책의 겉 모양에 있어서도 精巧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이 없다.

世宗朝에는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出版文化를 꽃피웠기 때문에 文化面에 있어서는 오히려 中國보다도 앞서 있다는 긍지조차 지녔었다. 그 때 <文選>을 印出하고 世宗 10年(1428)에 卞季良이 쓴 跋文이 이를 잘 증명해준다. 그는 活字의 鑄造를 설명하고 난 다음

“이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책이 없고 배우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니, 文教의 興盛은 의당 날로 더해갈 것이고, 世道의 隆盛도 의당 더욱 성대해질 것이다. 저 中國의 임금들이 財利와 軍事에 정신을 잃고 그것을 나라의 先務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하늘과 땅 이상의 차이이다. 실로 우리 朝鮮의 萬世無疆할 福이라 하겠다.”

(由是而無書不印, 無人不學, 文教之興當日進, 而世道之隆當益盛矣. 視彼漢唐人主規規於財利兵革, 以爲國家之先務者, 不啻霄壤矣. 實我朝鮮萬世無疆之福也.)

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世宗朝의 中國文學關係 典籍들의 刊行은 그 시대 뿐만이 아니라 이후 朝鮮時代 全般에 걸친 中國文學의 研究와 理解를 위한 礎石이 되었다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中國文學을 研究하여 우리 文化 발전의 영양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世宗의 業績은 대체로 成宗朝(1470~1494)까지 계승 발전된다. 이들 임금 이외에 太祖·定宗·太宗 때(1392~1418)와 文宗·端宗·世祖·睿宗(1456~1469) 때에는 中國文學關係 書籍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이들 임금들이 모두 文教政策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成宗朝에 刊行된 책들은 대체로 世宗朝에 刊行된 것들의 범위 안에 속하는 것들이나, 唐代의 詩人으로는 白居易(772~846)의 詩集이 눈을 끌고, 다시 宋代의 王安石(1021~1086)·曾鞏(1019~1083)·陳與義(1090~1101)·文天祥(1236~1283)같은 大家들의 詩文集 刊行이 두드러진다. 아무래도 世宗朝보다는 이 무렵으로 오면서 宋代文學에 대한 傾倒가 좀 더 두드러졌던 때문이 아니었나 여겨

진다. 그리고 文天祥의 文集이 나온것은 순수한 文學的인 견지에서 뿐만 아니라 王室內部の 王權 다툼으로 인하여 臣下들에게 좀 더 忠誠을 권하고 싶었던 심리도 작용한 때문인지 모른다. 이 밖에 <瀛奎律髓>·<聯珠詩格>·<文翰類選大成> 등의 좋은 詩文選集과 <事文類聚>가 나온것도, 그 시대 中國文學 研究에 크게 寄與했을 것이다.

이 밖에 雜書로 段成式(?~863)의 <酉陽雜俎>가 보이는데 이는 지방인 月城에서 개인이 木板으로 찍어낸 것이라 中央에 있어서의 中國文學에 관한 理解와는 無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成宗 직후의 燕山君 때(1495~1505)에 刊行된 책으로 <燕山君日記> 卷 62에 <剪燈新話餘話>가 보이는데, 이것은 世宗이나 成宗과 대조가 되는 임금의 文化政策의 수준 차이를 말해주는 것인듯도 하다.

成宗 이후로는 中宗·明宗(1506~1567)을 거쳐 宣祖(1568~1608)의 壬亂(1592) 이전까지 많은 中國文學關係 책들을 찍어내고 있다. 趙潤濟 <國文學史>에서는 太祖에서 壬亂에 이르는 時代를 「近古」라 하고, 또 「近古時代」를 太祖에서 成宗에 이르는 「蘇生時代」와 燕山君으로부터 壬亂에 이르는 「育成時代」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中國文學關係 刊行書만을 놓고 본다면 「育成時代」는 이전보다도 훨씬 雜駁해지는 樣相을 보이고 있다.

中宗·明宗 때에 <陶淵明集>이 나왔는데, 이 시기에는 古文大家들과 朱子學의 영향이 더욱 뚜렷해져서 앞에서 言及한 책들 이외에도 歐陽修(1007~1072)·蘇洵(1007~1072)·陳師道(1053~1101) 등의 詩文集이 더 나왔고, 朱熹(1130~1200)의 경우도 <朱子大全> 뿐만 아니라 <晦庵文抄>·<文公朱先生感興詩>·<訓蒙絕句> 등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 때의 陶淵明(365~427)에 대한 인식도 朝鮮學者들이 존중했던 蘇軾(1037~1101)·眞德秀(1178~1235) 같은 이들의 稱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듯하다. 또 曹植(192~232)의 <陳思王集>도 나왔는데, 이는 元 陳繹曾의 <詩譜>, 明 楊慎의 <升菴詩話>, 謝榛의 <四溟詩話>, 王世貞의 <藝苑卮

言〉 등을 통해서 曹植의 中國文學史上의 지위를 再認識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책이나 이들의 編著가 뒤에 刊行되었으니 이 무렵부터 이들의 이러한 책들이 읽혔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中國에 대한 事大的인 풍조도 이 때에 와서 뚜렷이 들어내 보이고 있다. 〈聖宋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聖元名賢播芳續集〉이 나왔고 〈明太祖文集〉·〈大明一統志詩詠集類〉·〈大明一統賦〉 등의 책명이 그것을 증명한다. 특히 明 李東陽의 詩文集과 함께 薛瑄(1392~1464)·賀欽(1437~1510) 같은 사람들의 詩文集을 낸 것을 보면 이미 이때에 明나라에 대하여 상당히 傾倒하는 경향을 지녔었음을 알게 된다. 이는 朝鮮 末葉에 이르기까지도 清代 學者들의 著述刊行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과 좋은 대조가 된다.

明人인 賀欽과 薛瑄이 모두 節義에 뛰어나는 인물이었다는 것도, 唐太宗 때 皇帝 앞에서 하고싶은 말을 서슴없이 다했던 魏徵(580~643)의 〈魏鄭公諫錄〉 및 李靖의 〈唐太宗李衛公問對直解〉가 刊行된 것과 함께 생각할 때, 대쪽 같이 곧았던 朝鮮 선비들의 氣質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때에 나온 〈列女傳〉은 한편 곧은 선비에 대가 되는 女性像의 定立을 생각하며 出刊했을 것이다.

한편 이 때 劉長卿(709~780?)과 李商隱(813~858)의 詩集이 나오고 〈儷語類編〉이 나왔던 것을 보며는 詩나 散文에 있어 晚唐風은 여전히 남아서, 아름다운 辭藻를 추구하는 文人들도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文苑英華〉를 비롯하여 〈崇古文訣〉·〈風雅翼選詩〉·〈雅音會編〉·〈唐詩正音〉 등 이 시기에 나왔던 詩文選集은 이 시대 文人들의 中國詩文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넓혀주는 작용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기는 朝鮮의 朱子學이 大盛했던 때이나 文學面에서는 宋代의 性理學者들 처럼 이른바 “載道之文”을 위주로한 古文단을 숭상하지 않고 글의 辭藻도 추구할 줄 아는 여유를 지녔던 듯 하다. 李滉(1501~1570)의 경우만 보더라도 宋의 性理學者들 보다는 훨씬 廣範한 詩歌들을 지어

抒情面에서도 상당한 境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中宗 18년에 刊行한 <韓柳李杜蘇黃詩文>이란 책(<中宗實錄> 卷 48)이 말해주고 있듯이, 이 시기의 일반적인 풍조는 韓愈·柳宗元의 古文과 李白·杜甫의 詩 및 蘇軾의 詩文과 黃庭堅의 詩를 배우려는 것이었다.

宣祖 때에도 壬辰倭亂 이전까지는 대체로 中宗·明宗 시기의 풍조가 그대로 이어졌었다. 여전히 朱子學이 大盛하여 앞에서 言及한 朱熹에 관한 책 이외에도 <朱子語類>가 나왔고, 곧고 깨끗했던 朱熹와 같은 시기의 學者 張栻(1133~1180)의 文集도 나왔었다. 다만 文學에 있어서는 대체로 中宗·明宗 때를 계승하면서도 宋詩보다는 唐詩를 중시하려는 경향이 생긴 듯 하다. 王安石(1021~1086)이 편찬한 <唐百家詩> 이외에도 <唐詩彙選>·<唐詩絕句> 등도 刊行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明宗·宣祖朝에 걸쳐 살았던 權應仁이 그의 <松溪漫錄>下에서

“今世의 詩學은 오로지 晚唐을 숭상하고 있다.”

(今世詩學, 專崇晚唐.)

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明宗 때에 晚唐의 辭藻를 중시하던 文風이 좀 더 발전했던 때문이 아니었나 여겨진다. 沈守慶(1515~1599)은 <遣聞雜錄>에서 이와는 다른 방향에서 그 시대 唐詩의 盛行을 말하고 있다.

“내가 젊었을 적에는 선비로써 古詩를 배우는 사람들은 모두 韓愈와 蘇軾의 詩를 읽었는데 그 유래는 오래된 것이다. 근년에는 선비들이 韓愈와 蘇軾을 卑格이라 하여 버리고 읽지 않고 李白과 杜甫詩를 취하여 읽고 있다.”

(余少時, 士子學習古詩者, 皆讀韓詩東坡, 其來古矣. 近年, 士子以韓蘇爲卑格, 棄而不讀, 乃取李杜詩讀之.)

이는 어쨌든 宣祖 때 刊行한 몇 가지 唐詩選들이 보인다는 사실과 부합하는 말이다. 그리고 三唐派라 불리우던 白光勳(1537~1582)·崔慶昌

(1539~1583) · 李達(?) 또는 鄭之升(?) 등의 활약과도 들어맞는다.

또 南宋의 愛國的인 名將으로 文才도 兼備하였던 岳飛(1103~1141)의 활약을 쓴 小說類의 책으로 보이는 <會纂宋岳鄂武穆王精忠記>와 宋末의 愛國忠臣인 文章家 文天祥(1236~1283)과 明나라 惠帝(1399~1402) 때 叛旗를 든 燕王 棣의 南侵을 물리치려다 목숨까지 바친 文人 方孝孺(1357~1402) 두 사람의 文集을 合刊한 <文天祥方孝孺文集>도 刊印했었다(<宣祖修正實錄> 卷 19). 이처럼 愛國과 忠誠을 강조하는 뜻이 담긴 文集을 刊行한 것을 보며는, 壬亂 이전에도 이미 外敵侵入에 대한 불안을 그 때 지식인들이 예감하고 있었던 듯 하다.

光海君(1609~1622) 때에는 壬亂直後임에도 불구하고 中國文學 分野에 있어서는 精選된 各時代의 대표적인 책들이 刊行되고 있다. <詩經> · <書經> · <春秋>經傳들을 비롯하여 <楚辭集註> · <文選> 六臣注와 唐代의 李白 · 杜甫 · 韓愈, 宋代의 蘇軾 · 黃庭堅 · 陳與義 · 陳師道, 明代의 李東陽 등의 精選된 詩文集이 刊行되고 있다. 雜書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中國文學의 代表的인 著述이며 嚴選된 板本들인 것으로 보아, 失傳된 것들이었다 하더라도 이 時代에 刊行된 책들은 世宗朝와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느껴지게 한다. 壬亂 후의 小康의 局面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仁祖 때(1623~1649)에 와서는 다시 內政의 혼란과 丙子胡亂(1636) 때문인듯 별로 典籍의 刊行이 없었던 것 같다. 中國文學 關係 책으로는 朝鮮人인 李植(1584~1647)이 편찬한 <儷文程選>과 李敏求(1589~1670)가 편찬한 <唐律廣選>이 전한다. 이 두 권의 책의 성격으로 보아 나라는 두 번이나 南北의 外敵에게 유린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當時에는 華麗한 辭藻나 추구하는 文人들이 많아졌던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러나 이 때에는 中國學者들의 編著보다도 우리 學者들이 편찬한 中國文學 書籍을 刊行한 것은, 胡亂 이후 朝鮮의 지식인들 사이에 自主的인 의식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지기도 한다.

孝宗(1650~1659) 이후로는 朝鮮 末에 이르기까지 中國人들의 文學關係 책들보다도 우리 자신들의 책을 더 많이 찍어내게 된다. 이는 분명한 自主意識의 발로라고 보아도 괜찮을 것이다. 이 때에 수많은 우리 자신들의 책을 찍은데 비하여, 中國文學關係 책으로는 우리 손으로 再編한 <三大家詩全集>과 鄭經世(1563~1633)가 편찬한 <朱文酌海>가 남아 전하는 정도이다. 仁祖 때에 나온 <儷文程選>·<唐律廣選> 등과 아울러 볼 때, 이것도 분명히 學問에 있어서의 自主性을 뜻하는 것인듯 하다.

肅宗(1675~1720) 때에 오면 우리 자신의 책도 많이 刊行하는 한편 中國文學關係 책들도 다시 많은 양을 찍어내게 된다. 이는 學問에 있어서의 自主意識이 結果를 맺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 찍은 책들은 그다지 精選된 板本을 底本으로 한 것 같지는 않으나 그 종류가 이전의 어떤 時代보다도 多様하다. 詩·書 등 儒家經典을 비롯하여 <莊子>가 나왔고, <楚辭>·<文選>에 이어 晉 陶淵明과 唐代의 韓愈·柳宗元·韋應物·李商隱, 宋代의 蘇軾, 明代의 方孝孺·茅坤 등의 詩文集이 나와 있다. 또 詩文選으로는 <唐宋八大家文抄>·<古文眞寶大全>·<古詩選>·<儷文抄>·<儷文集成>·<古文> 등 多様な 성격의 것들이 나왔다. 王世貞(1526~1590)의 <藝苑卮言> 같은 文學論에 관한 책도 있고, <世說新語補>·<剪燈新話句解> 같은 小說類도 있다. 거기에다 韻書와 故事成語에 관한 책까지도 나왔다. 그러니 이 때 와서는 朝鮮 文人들이 어떤 한 부분의 文學이나 한 종류의 文體 만을 취하지 않고 자유로이 多様な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게 아닌가 한다.

다만 <皇明五大家詩文抄>·<皇明五大家律詩> 및 <皇明大家王弇州文抄>·<皇明大家茅鹿門文抄> 등의 책명으로 보아 尊明의 경향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古文>·<儷文抄> 등 우리 손으로 편찬된 책들과 中國에서 들어온 것이라 하더라도 <古文眞寶> 처럼 朝鮮의 獨特한 形式의 책의 유행 같은 것은 역시 學問의 自主化 경향을 뜻한다 할 것이다.

英祖·正祖·純祖(1725~1834)의 시대도 대체로 肅宗 때의 풍조가 그대로 계승된다. 이 시기에 많은 우리 先人들의 著述을 刊印하는 한편 中國文學關係 책들도 찍어냈는데, 그 수량은 肅宗 때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英祖 때에는 <朱子大全>·<朱子文集大全>·<朱子語類>·<朱文公齋居感興詩> 등 朱熹의 책이 많이 刊行되었으니 朱子學의 여전히 盛行을 짐작할 수 있다. 明代 顧憲成(1550~1612)과 高攀龍(1562~1626)의 文集이 合刊되고 <洪武正韻>이 나왔던 것을 보면 尊明의 氣風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듯 하다. 宋人의 詩文集은 보이지 않는 반면 明代 高棟이 편찬한 <唐詩品彙>가 나온 것을 보면 詩에 있어서는 唐詩를 존중하는 氣風이 유행했던 게 아닌가 싶다. 正祖 때에 <李太白詩>가 나왔고 또 當時 사람들 손에 이루어진 <杜律分韻>·<陸律分韻>·<御定杜陸千選> 등이 나왔다는 것과 합쳐본다면 더욱 英·正代의 詩風이 尊唐으로 기울었음을 짐작케 된다. 그리고 邵雍(1011~1077)의 <伊川擊壤集>이 나오고 또 <朱書百選>이 編纂刊行된 것을 보면 實學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이 때까지도 朱子學의 뿌리는 요지부동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 밖에 當時人의 손으로 엮어진 <文苑黼黻>과 <唐宋八子百選> 같은 詩文選集도 나온 것을 보며는 學問의 自主的인 풍조는 더욱 뚜렷해졌음을 느끼게 한다. 純祖 때에는 英·正祖代의 風潮가 그대로 계승발전되면서도, 中國文學關係 책의 刊行은 현저히 줄어든다. 거기에 비하여 자신들의 著述刊行은 여전히 盛行된 것을 보며는 더욱 강해져가고 있는 自主的인 學問 경향을 실감케 된다.

憲宗(1835~1849) 이후 哲宗·高宗에 이르는 시대(1850~1896)에는 中國文學關係 書籍의 刊行이 더욱 적어진다. 文璣奎氏가 그의 <韓國漢文學史>에서 憲宗에서 高宗에 이르는 시기(1835~1896)를 漢文學의 「終末期」로 구분한 이유는 이를 통해서도 수궁이 간다. 이 시기는 漢文學이 終末期였을 뿐만 아니라 朝鮮王朝 자체가 終末로 치달고 있는 위태롭던 시기라서 中國文學 뿐만이 아니라 文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줄어

들었던 시기이다. 곧 이 시기 지식인들의 관심은 모두 文學보다도 政治 社會問題에 쏠리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수많은 韓籍들이 刊行되었으나 그 중에도 文學關係 著述들은 별로 많지 않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近來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中國文學關係 書籍의 刊行 뿐만이 아니라 中國文學研究에 있어서까지도 한 동안의 沈滯期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4. 刊行書目上の 特徵

1) 詩文集類의 特徵

詩文集의 刊行만을 놓고 본다면은 朝鮮時代 우리 先人들의 中國文學에 대한 관심은 매우 그 범위가 좁았었다고 할 수 있다. 唐代 이전 文人들의 文集으로는 曹植과 陶淵明의 것이 나왔을 뿐이며, <諸葛忠武侯全書>도 나왔으나 諸葛亮은 文人이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唐人의 詩文集도 13人的 것이 나왔으나 魏徵과 陸贄의 것은 文學外的 목적에서 刊行된 것이어서, 重要的 作家들 중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宋人도 16人的 文集이 나왔으나 역시 文學 이외의 動機에서 刊行된 邵雍·張栻·黃榦·文天祥을 빼고 보면 大家들을 網羅한 것이 못된다. 明代 것으로는 7人的 詩文集이 있으나 李東陽·王世貞·茅坤을 제하며는 더욱이 한 시대를 대표할 수 없는 人物들이다. 그리고 清代作家의 詩文集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는 형편이다.

文集發刊의 頻度로서 본다면은 朝鮮時代に 가장 존중된 中國文學者는 陶淵明·李白·韓愈·柳宗元·歐陽修·蘇軾·王安石·黃庭堅·陸游·朱熹 정도이며 (여러 차례 刊行), 다음으로 韋應物·白居易·杜牧·李商隱·陳師道·陳與義·李東陽(서너 번 刊行) 등이 중시되었으며, 나머지 사람들의 文集은 대부분이 한 번(간혹 두 번) 刊行되었을 따름이다. 安平大君 李瑢(1418~1453)이 諸儒들과 함께 李白·杜甫·韋應物·柳宗

元·歐陽修·王安石·蘇軾·黃庭堅의 詩를 모아 〈八家詩選〉一卷을 내고 있는 것도 當時尊崇한 中國文人들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들을 전체적으로 綜合해 보며는 朝鮮時代에 이것들을 刊行토록 영향을 준 몇가지 風潮를 抽出해 낼 수가 있다.

첫째; 唐宋八大家를 중심으로 한 古文家 尊崇의 풍조이다. 따라서 八大家인 韓愈·柳宗元·歐陽修·蘇洵·蘇軾·蘇轍·王安石·曾鞏의 詩文集은 모두 나와 있다. 이들의 古文뿐만이 아니라 詩까지도 함께 높이 평가하였음에 틀림 없다. 그들 이전의 陶淵明·李白·杜甫도 八大家들의 稱頌이 더욱 그들의 詩를 높이 評價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둘째; 黃庭堅을 중심으로 한 江西詩派의 영향도 분명하다. 黃庭堅·陳師道는 江西詩派의 大家이니 말할것도 없고, 陸游·陳與義의 詩文集도 앞에 든 古文家들의 尊崇과 함께 유행하였던 蘇軾을 중심으로 한 宋詩의 尊崇風潮로 말미암아 널리 읽히게 되었던 것이라 할 것이다. 元나라 方回가 〈瀛奎律髓〉에서 一祖三宗으로 杜甫와 黃庭堅·陳師道·陳與義를 내세웠던 論詩 태도 같은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셋째; 性理學의 盛行이다. 朝鮮時代의 儒學은 性理學 一邊倒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盛行하였기 때문에, 中國文學 연구와 그에 관련된 詩文集 刊行에도 그 영향이 없을 수 없었을 것이다. 朱熹는 말할 것도 없고, 邵雍·張栻·黃榦 등의 文集은 그 때문에 刊行되어 널리 읽혔을 것이다. 한 편 古文家들의 思想的인 背景으로는 儒學의 道統論을 바탕으로 하는 「文以載道」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면이어서, 이 점에서 古文과 性理學은 表裏를 이룬다. 다른 角度에서 본다면 宋代에 완성된 古文運動은 歐陽修에 앞서 孫復(992~1057)·尹洙(1001~1047)·石介(1005~1045) 같은 性理學의 先驅者들이 古文을 주장하였고, 周敦頤(1017~1073)를 비롯한 거의 모든 性理學者들이 古文을 썼던 것을 생각하며는 古文運動의 성공은 性理學의 뒷받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性理學의 영향은 첫째 古文家의 영향과 아

을러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네째 ; 唐詩 자체의 嗜好이다. 李白·杜甫와 韓愈·柳宗元의 詩文集 뿐만 아니라 寒山子·劉長卿·韋應物·白居易·杜牧·李賀·李商隱 등의 詩文集도 刊行된 것을 보며는 한 때 尊唐派도 있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華麗한 辭藻를 추구하는 唯美主義的인 경향을 지닌 李賀·李商隱의 詩集이 나온 것을 보며는 일부 晚唐風을 좋아하던 文人들도 있었을 것임을 느끼게 한다.

다섯째 ; 明나라에게 事大하려는 일부 風潮이다. 明初 茶陵派의 우두머리였던 李東陽과 後七子의 대표적 인물인 王世貞의 詩文集이 나온 것은 그런대로 수공이 가나, 太祖 朱元璋을 비롯하여 方孝孺·薛瑄·賀欽·茅坤 등의 文集까지도 나온것은 尊明의 풍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淸人の 文集은 반대로 없다는 것은 尊明으로 말미암은 반발의 의식도 작용한 때문일 듯 하다.

여섯째 ; 非文學的인 動機도 분명히 일부 文集刊行에 작용을 가하고 있는 듯 하다. 明나라 王士驥가 편찬한 三國時代諸葛亮의 〈諸葛忠武侯全書〉와 宋末의 忠臣 文天祥의 〈文山先生文集〉, 明 初葉의 忠臣인 方孝孺의 文集 같은 것은 當時 사람들에게 임금과 나라에 대한 忠誠의 뜻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그들의 文學的인 이해보다도 앞섰을 것이다. 文天祥과 文孝孺의 文集을 合刊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며는 그것은 더욱 분명한 일이다. 그 밖에 唐 太宗 때의 諫議大夫로서 皇帝도 겁을 낼 정도로 皇帝 앞에서 올바른 말을 많이하여 유명한 魏徵의 〈魏鄭公諫錄〉과 唐 德宗 때 翰林學士로서 皇帝에게 여러가지 건의를 하여 나라 일을 올바르게 이끌어 유명한 陸贄의 〈陸宣公奏議〉 같은 것은 節義를 숭상하며 임금 앞에서도 서슴 없이 올바른 말을 하던 朝鮮 선비들의 이상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는 魏徵이나 陸贄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明人 중에서도 薛瑄과 賀欽이 節義의 人이니 그들의 文集도 文學 보다도 그들의 人品을 배우려고 냈다고 볼 수 있다.

2) 詩文選集類의 特徵

〈楚辭〉와 〈文選〉이 여러 번 刊行되어 널리 읽힌 것은 무엇보다도 당연한 일이다. 다만 〈楚辭〉의 註釋으로는 朱熹의 「集註」와 「後語」·「辨證」만이 나왔었다는 것은 朱子學에 대한 傾倒가 지나쳤음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文選〉에 있어서는 〈六臣註〉라 하더라도 中國이나 日本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 〈五臣註〉에다가 〈李善註〉를 붙인 것(中國이나 日本의 〈六臣註〉는 〈李善註〉에 〈五臣註〉를 추가한 것이 유행했었음.)이 계속 나왔고, 또 中國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던 〈五臣註〉本이 여러 번 刊行되었었다. 이는 中國이나 日本의 學者들과는 달리 朝鮮에서는 李善보다도 五臣을 더 중시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 밖에 〈文選〉에 실린 賦·詩·對策·散文 등을 따로 떼어 놓은 책들로 여러 종류가 刊行되었으니, 〈文選〉은 朝鮮에 있어 文章敎本으로 큰 몫을 차지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文選〉의 體例를 뒤이은 宋人이 편찬한 〈文苑英華〉가 나와 상당히 읽혀졌다는 것도 이상할게 없다.

詩文選集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이는 것은 古文을 중심으로 한 選集들이다. 그 중에서도 〈古文眞寶〉(前集은 古詩, 後集은 古文選集임)와 〈文章正宗〉·〈文章軌範〉의 세 가지와 〈唐宋八大家文抄〉이다. 朝鮮時代에 유행한 〈詳說古文眞寶大全〉은 中國이나 日本에 유행되었던 〈古文眞寶〉보다도 前後集 다 같이 詩文의 分量이 倍에 가까운 정도나 더 많이 실려있는 것들이며, 뒤에는 附錄으로 〈文章軌範〉까지도 서로 중복되는 문장은 빼고 나머지 글을 붙여놓은 것이 나왔다. 좀 더 많은 글을 읽고 익히려는 욕심이 그런 板本을 유행시키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唐宋八家文〉도 적어도 表題上으로도 세 가지 이상의 板本이 여러 번 出刊되었던 듯 하다. 個人文集으로 앞 目錄에서 처리한 蘇軾의 〈蘇文抄〉·〈蘇東坡文抄〉·〈宋大家蘇文忠公文抄〉나 王安石의 〈王文抄〉·〈王臨川文抄〉·〈宋大家王文公文抄〉등 (나머지 八大家도 모두 같은 것임)은

모두 〈唐宋八大家文抄〉에서 제각기 떨어져 나와 전해지고 있는 文集임에 틀림 없다. 이들 古文選集의 글들은 〈文選〉의 글들 보다는 읽고 배우기가 쉬워서, 일반적으로는 〈文選〉 보다도 더 널리 유행했을 것이다. 이 밖에도 〈續文章正宗〉·〈崇古文訣〉·〈文章辨體〉·〈名世文宗〉 등 여러 가지 古文選集이 나왔었으나, 앞에 든 책들의 유행에는 훨씬 못 미치는 정도로 읽혔다.

朝鮮의 散文은 古文이 主流를 이루었지만 駢儷文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았던 듯 하다. 駢儷文選集으로는 明 趙仁奎의 〈儷語類編〉이 세 번 이상 刊行되었으니 가장 널리 읽혔던 듯 하고, 그 밖에 朝鮮 學者들 손에 편찬된 〈儷文程選〉과 〈儷文精選〉을 비롯하여 編者不明의 〈儷文抄〉·〈儷文集成〉 등도 出刊되었다.

詩選集으로는 元 方回的 〈瀛奎律髓〉와 明 高棟의 〈唐詩品彙〉가 가장 여러 번 刊行되었으니, 이는 각각 宗宋派와 宗唐派의 詩에 대한 견해를 대표하는 選集인 듯 하다. 이 밖에 元나라 學者들이 편찬한 詩選集으로 元好問의 〈唐詩鼓吹〉, 于濟의 〈聯珠詩格〉, 劉履의 〈風雅翼選詩〉, 楊士弘의 〈唐詩遺響〉 등이 두어번씩 刊行되면서 많이 읽혔고, 宋人의 것으로는 王安石의 〈唐百家詩〉와 呂本中の 〈唐詩詳節〉이 刊行되고 있다. 詩에 있어서도 宋元人이 편찬한 選集들이 가장 많이 刊行되었다는 것은, 散文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詩에 있어서까지도 宋代文人들이 朝鮮 詩人들에게 보다 큰 영향을 주어왔음을 느끼게 한다. 그것은 唐代詩人들이라 하더라도 李白·杜甫·韓愈·柳宗元의 詩는 말할 것도 없고 劉長卿·韋應物·白居易·杜牧 같은 詩人들의 詩集까지도 宋人들이 그 刊行에 보다 큰 영향을 끼쳤던게 아닐가 추측케 한다.

또 한가지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中宗 때 나온 〈大明一統志詩詠集類〉와 〈大明一統賦〉 및 肅宗 때 나온 〈皇明五大家詩文抄〉·〈皇明五大家文抄〉·〈皇明五大家律詩抄〉·〈盛明五大家律續抄〉 등이다. 모두 우리 나라에서 다시 손을 댄 뒤 標題를 붙인 것인 듯 한데, 中宗 무렵부터 두드리

진 尊明의 풍조를 말해 주는 것들이다. 앞의 目錄 文集 속에 들어있는 茅坤의 〈皇明大家茅鹿門文抄〉와 王世貞의 〈皇明大家王弇州文抄〉 및 이들 두 사람의 合集인 〈皇明茅鹿門王弇州二大家文抄〉는 모두가 위에 든 〈皇明五大家文抄〉에서 떨어져 나와 전해지고 있는 것들임이 분명하다. 方孝孺의 〈文正學文抄〉도 여기에서 떨어져 나와 전해지고 있는 것이거나 그 때 함께 정리된 것이라 여겨진다.

앞의 詩文集類의 特徵을 논하면서 그것들 刊行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첫째 ; 古文家의 尊崇, 둘째 ; 江西詩派의 영향, 셋째 ; 性理學의 盛行, 넷째 ; 唐詩 自體의 嗜好, 다섯째 ; 明나라에 事大하러던 風潮, 여섯째 ; 非文學的인 動機 등 여섯가지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그것은 모두 詩文選集類의 刊行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詩文選集類의 特徵을 참고하면서 이 다섯가지 풍조를 다시 한번 吟味해 주기 바란다.

3) 其他 刊行書籍들의 特徵

첫째 小說類의 책들이 별로 많이 刊行되지 않았는데, 이는 道學的인 朝鮮時代 學者들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소개된 책이라고는 모두가 劉向의 〈列女傳〉, 劉義慶의 〈世說新語〉, 段成式的 〈西陽雜俎〉, 瞿佑의 〈剪燈新話〉 및 〈會纂宋岳鄂武穆王精忠錄〉 정도인데, 대체로 거기에 담긴 教訓的 내용과 凡常치 않은 얘기들이 이 책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따라서 朝鮮의 文人들은 末葉에 이르기까지 文學에 있어서의 小說의 존재는 거의 무시하였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詩文論에 관한 책으로는 宋代 魏慶之의 〈詩人玉屑〉, 陳繹曾의 〈文章歐治〉와 元代 歐陽起鳴의 〈歐陽論範〉이 비교적 일찍이 刊行되었으나, 朝鮮 文人들의 文學理論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明代의 詩話로는 楊慎의 〈升菴詩話〉, 胡應麟의 〈詩藪〉, 王世貞의 〈藝苑卮言〉 등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著述들이 刊行되었으나, 그 시기가 宋元人の

것들보다는 약간 늦은듯 하다.

韻書는 <洪武正韻>이 刊行되었었으니, 우리 漢字 聲韻 정리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崔世珍(?~1547)의 <四聲通解>와 世宗朝에 편찬된 <東國正韻> 등이 바로 그것이다. 宋나라 黃公紹의 <古今韻會舉要>가 刊行되었으나 世宗朝 이후로 漢字 字韻은 우리 손으로 정리되어 <大東韻玉>·<奎章全韻> 등의 좋은 韻書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中國學者들의 著述에 기댈 필요가 없었던듯 하다.

그리고 옛 글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참고서로는 宋人이 편찬한 <事文類聚>가 여러번 刊行되었으니 學者들이 크게 이용했던듯 하다. 明나라 丘濬의 <故事成語> 같은 책은 肅宗 때에 가서야 刊行되고 있을 뿐이다.

5. 結 論

이상 研討結果를 종합해 보며는 朝鮮時代 刊行된 中國文學關係書들은 그 시대의 中國文學 研究動向과 中國文學에 대한 이해 등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 뿐 아니라 朝鮮時代의 學術潮流, 學問傾向과 全體的인 文學風潮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것은 中國文學關係書의 刊行만을 놓고 보더라도 世宗朝의 學問과 文化 수준은 특히 뛰어났었음을 實感케 한다. 中國文學史上 各時代를 대표할 作家들의 文集과 詩文選集이 잘 선택되었고, 그 板本도 精選된 것임이 분명하게 느껴진다. 그것을 새로 鑄造한 活字로 排印하여 雅麗한 형식의 책으로 만들어 냈으니, 中國文學關係書의 發刊에 있어 世宗朝는 世界史上 劃期的인 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검토하고 연구하여야 할 이 분야의 빼어난 板本도 朝鮮時代 중에서도 世宗朝에 刊行된 책들 중에 가장 많을듯 하다.

그 다음으로 精選된 책들을 내었다고 여겨지는 시기는 光海朝이다.

壬亂을 겪고 난 후이기는 하지마는 어느 정도 小康이 유지되었고, 또 그때까지 성행된 朝鮮의 朱子學이 자기 나름대로의 자리를 잡아, 그 나름대로의 中國文學을 보는 눈이 안정되었기 때문인듯 하다.

中宗·明宗 때부터 中國文學關係書의 刊印을 통해서도 明에 대하여 事大하는 경향이 늘어남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한 경향은 壬亂後도 계속되어 肅宗朝에도 뚜렷이 드러난다. 그러나 壬亂에 이어 胡亂을 겪으면서 한 편 民族意識과 함께 학문의 自主的인 경향도 두드러지게 된다. 그것은 <文選>·<古文眞寶> 처럼 中國과는 다른 朝鮮人들만이 좋아하는 板本을 읽는데서 시작하여, 직접 朝鮮學者들이 편찬한 中國文學 詩文選集이 늘어나는 것 등으로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비올로 따져 孝宗 때 부터는 朝鮮人 자신들의 作品과 著述의 刊行이 中國文學關係書에 비하여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中國文學關係書는 英祖·正祖·純祖로 내려오며 현저히 그 刊行이 줄어들다가 憲宗 이후로는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되어버린다. 朝鮮朝에 이 처럼 中國文學關係書가 보기 어렵게 된 것은 自主化란 면에서는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우리와는 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中國文學의 研究와 이해를 疏遠케 하였다는 점은 매우 아쉽게 여겨진다.

앞에서 이미 여러번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에는 또 性理學 盛行의 영향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詩에 있어서 陶淵明·李白·杜甫·韓愈·柳宗元과 蘇軾·黃庭堅·陳師道·陳與義 등을 좋아하는 것과 散文에 있어서 唐宋八大家를 중심으로 한 古文을 崇尚한 것 등은 모두 性理學과 表裏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朝鮮時代에 있어서는 대체로 古文과 함께 蘇黃詩를 존중하는 풍조가 大勢를 이루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詩에 있어서는 尊唐의 氣風을 무시할 수는 없다. 李杜와 韓柳 이외에도 寒山·劉長卿·韋應物·白居易·李賀·杜牧·李商隱 등의 文集이 刊行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李賀·杜牧·李商隱 등 晚唐詩人의 文集이 세 사람 것이나 刊行된 것을 보며는 晚唐詩를 尊崇하는 風潮도 一

時 강했었을 것임을 알게 한다. 특히 明 趙仁奎의 <儷語類編>을 비롯하여 朝鮮人 손에 이루어진 <儷文程選>·<儷文精選> 등 여러가지 駢儷文 選集들이 나온것을 보면 古文 뿐만 아니라 駢儷文도 一時 상당히 성행 되었음을 알 수 있다. 晚唐詩의 尊崇과 駢儷文의 盛行을 아울러 보면, 한 대엔 性理學과 어긋나는 華藻를 추구하는 文風도 꽤 강하였을 것임을 느끼게 한다. 外國人으로서는 어느 정도 공부만 하면 自然스런 리듬의 古文보다는 駢儷文이 쓰기 쉽고 詩에 있어서는 華麗한 文藻의 추구가 그럴듯한 작품을 써내기에 편리하였기 때문이었던 지도 모른다.

이 밖에 非文學的인 動機가 더 강하다고 생각되는 文集이나 詩文選의 刊行은 諸葛亮·文天祥·方孝孺 같은 忠誠과 魏徵·陸贄 등이 보여주는 節義의 두 면이 두드러진다. 忠誠과 節義는 곧 朝鮮時代 지식인들이 가장 존중하던 덕성이었던 듯 하다.

끝으로 朝鮮時代 中國文學關係書 刊行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가장 좋은 板本으로는 世宗·成宗朝에 出刊된 것들을 注目해야만 할듯 하고, 적어도 朝鮮 中葉인 光海君 이전 시대에 나온 책들에 보다 큰 關心을 두어야만 할듯 하다.

〔參考書目〕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서울大一般古書目錄	서울大圖書館
奎章閣圖書中國本總目錄	서울大圖書館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서울大圖書館
韓國典籍綜合目錄	圖學資料保存會
韓國古書綜合目錄	韓國國會圖書館
藏書分類目錄	國立中央圖書館
淸勞室書目	寶蓮閣
古書目錄	延世大中央圖書館
古書目錄	成均館大中央圖書館
古書目錄	東國大中央圖書館

藏書目錄(漢古籍篇)

篇嶺西大中央圖書館

韓國書誌學概論

尹炳泰著 韓國書誌學情報學會

韓國古書年表資料(補)

尹炳泰 編 國會圖書館報 第九卷 第三號 1972.

中韓兩國古活字印刷技術之比較研究 曹炯鎮 著 臺北 學海出版社 1986.